

지역별 순회 투표... 완전국민경선 '흥행몰이' 끝내 대권 꿈 접은 비박 주자들

민주 대선 후보 경선 일정·방식 윤곽

당원·대의원 '1인 1표제'... 모바일·현장 투표 내달 25일 시작... 순회경선 결과 곧바로 공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은 권역별 순회 투표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 최고위원이 밝힌 경선률의 골자는 투표를 희망하는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를 기반으로, ARS 모바일과 현장 투표등을 결합한 권역별 순회투표를 하는 것이다. 당원과 시민의 참여 비중을 정해놓은 국민참여경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과 당원의 구분을 두지 않고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자와

당원·대의원 투표자 간 표의 등가성에 차등을 두지 않는 '1인1표제'를 도입했다.

투표방식은 모두 3가지다. 우선 일반 국민과 민주당 권리당원은 모바일 투표 또는 각 시군구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소 투표를 한다.

대의원들은 권역별 순회경선 당일 현장투표(권변선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당원은 선거인단 신청 없이 모바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하면 현장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23일까지 30일간이다. 지역별 경선은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요일에도 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8월25일 제주를 시작

으로 울산(26일), 강원(29일)에서 순회 경선을 갖는다. 9월에는 충북(1일), 전북(2일), 인천(5일), 경남(8일), 광주·전남(9일), 부산(12일), 세종·대전·충남(15일), 대구·경북(16일), 경기(22일), 서울(23일) 순으로 각각 지역별 경선이 치러진다.

주목을 끄는 것은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모바일 투표 결과 또한 바로 공개하기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권자의 권역별 주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다만,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서울 모바일 경선일(9월 20~22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최고위원은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 투표소 투표가 모두 결합한 방식이고, 경선의 흥행성과 역동성을 높여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선의 관도가 예측불허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 기간은 다르다. 광주·전남의 경우 8월28일이 선거인단 모집

감일이다. 다만, 해당 지역의 모집 기간에 신청을 못 하더라도 9월11일까지 신청하기만 하면 마지막 서울 경선 때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단 모집 방식에서는 부정선거 소지를 줄이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콜센터와 인터넷, 서류접수 등 3가지 방법으로 하되 서류접수의 경우 2007년 경선의 흥행실패를 야기한 '박스패지'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접수하도록 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하도록 했으며 콜센터 접수의 휴대전화는 1개 번호당 1번, 집전화는 1개 번호당 2번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진출자 5명을 가르는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9~30일 시민·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선캠프간 원탁회의에서 내용을 조정하고, 16일과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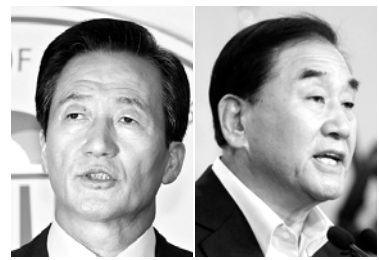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이재오 불참 선언... 새누리 경선 적신회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 비박 주자들이 9일 잇따라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적신회가 커졌다.

경선행렬이 꼭 대선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추대 분위기 속에 딱빠진 경선으로 흐름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선운동 시기도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선(8월 20일)은 8월 런던 올림픽이 겹쳐 아무



정몽준 의원



이재오 의원

래도 국민적 관심이 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민주당은 올림픽 이후인 9월 23일 경선을 치른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민

주당은 당내 후보 선출 후 야권의 유력 장외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라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도 남겨놓고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경선이 이미 정해진 판이라면, 민주당 경선은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 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박 3인방 중 마지막 남은 김문수 경기지사마저 불참을 선택할 경우 새누리당 경선은 더욱 썰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캠프와 친박 핵심, 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경선행렬이 꼭 대선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면서 비박 주자들의 대선승리 기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대선주자들 민심잡기 경쟁

문재인 태릉선수촌·손학규 관훈클럽 토론·김두관 광주 방문

민주통합당 경선 일정과 규칙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9일 치열한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다.

각자 대선 후보 경선 승리를 장담하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민생현장 탐방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태릉선수촌을 방문,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 등을 격려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대선 출마 포부와 정책을 밝히면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

조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이 이미지를 이긴다"며 "많은 중간층, 중산층이 손학규라면 안심하고 찍을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되는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손 고문은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토론회와 대한영양사협회 초청 정책 간담회도 참석했다.

전날 출정식을 치른 직후 '서민과 통하는 희망 대장정'에 나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이날 광주시와 세종시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빈부·지역 차별 없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새로

운 각오를 다지려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선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 "경찰·검찰·교육 자치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국회에서 주요 슬로건 중 하나인 '빛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발표회를 갖고 '하루소 푸어' 대책으로 매매가 부진한 국민주택규 모 이하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 설립한 기구가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공청회에서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왼쪽부터),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민심탐방 광주, 첫 방문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당분간 '국민 행복'을 키워드로 한 지방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되는 만큼 출마선언 이후 열흘간 지방 현장을 찾아 일반인과 접촉면을 넓히고 두 번째 대권도전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경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열흘간 5회 가량 지방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방문지가 텃밭 수성을 위한 영남이 될지, 불모지 공략을 위한 호남이 될지,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이 될지, 최대 표심인 수도권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위원장의 정치 고향인 대구 지역의 의원들은 박 전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하고 있고, 부산 의원들은 재개발 르네상스 사업지, 유엔평화공원, 이태석 신부 생가 등을 방문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첫 방문지가 영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내일 처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정두언·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요구서가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제출을 보고받았으며 보고가 이뤄진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선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이 돼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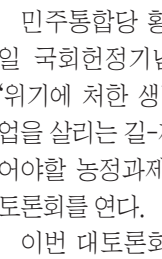
정가 라운지

배기운,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발의

황주홍, 첫 농정토론회 개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9일 노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또 문화·예술전문분야를 확대한 문화예술진흥법과 공문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 국어기본법, 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10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위기에 처한 생명참고: 한국 농업을 살리는 길-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정책·현장 주제 발표자로 각각 나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대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경매투자

-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 교육 / 임장비등 550만원
- ▶ 특수물건만 취급
- ▶ 배우면서 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 년10~30% 수익률
- ▶ 기간 : 1년정도

주 |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액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